

#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자본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 회복탄력성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 The Influence of of Social Capital in Out-of-School Youths up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resilience

이화명\*, 김영미\*\*

경남정보대학교\*, 부산여자대학교\*\*

Hwa-Myung Lee(seahwamyung@hanmail.net)\*, Yeoung-Mi Kim(okok25366@hanmail.net)\*\*

### 요약

본 연구는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자본이 진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들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부산시에 거주하는 학교 밖 청소년 12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사회적자본과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은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준비행동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의 사회적 자본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들의 회복탄력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심리·정서적인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야 하며, 회복탄력성에 초점을 맞춘 진로상담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중심어 : | 학교 밖 청소년 | 사회적 자본 | 진로준비행동 | 회복탄력성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gure out the influence of social capital in out-of-school youths upon career behavior and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 of resilience in its relationship. To achieve the research objective, the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targeting 127 out-of-school youths who dwell in Busan Metropolitan Cit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capital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the resilience appeared to have a mediating effect. Seeing the outcomes of this study, a positive support seems to be necessary so that out-of-school youths can make good use of the social capital in local community in order to increase the career preparation behavior in out-of-school youths. Furthermore, the psychological and emotional programs must be developed that can enhance resilience in out-of-school youths. A career counseling with the focus on resilience will need to be carried out.

■ keyword : | Out-of-school Youth | Social Capital | Career-preparation | Resilience |

## I. 서론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벗어나면서 일반적인 청소년이 아닌 문제아 또는 실패자라는 낙인과 소외감,

좌절감 등으로 고통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1].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전체 청소년 중 매년 평균 1.5% 정도인 약 6만 명, 누적 28만 명의 청소년들이 학교를 떠나고 있다[2]. 학교 밖 청소년은 정규교육 과정을 중단

접수일자 : 2022년 07월 19일

수정일자 : 2022년 08월 17일

심사완료일 : 2022년 08월 31일

교신저자 : 김영미, e-mail : okok25366@hanmail.net

한 청소년이라고 보는데, 이들은 학교를 중단하였지만 학교 밖에서 학업을 이어감으로서 자신의 진로를 만들어가고 있으나 아직도 '학업 중단'이라는 사회적 편견이 많다[3].

청소년기는 신체적, 인지적, 사회적, 정서적 측면에서 자신의 진로를 계획하며, 다양한 발달을 경험하고, 꿈을 키워나가는 중요한 시기인데,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는 이런 상황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가정, 지역사회 등의 다양한 환경요인으로 인하여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학업을 중단하는 청소년들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학교 밖 청소년들은 정규교육 과정을 중단하면서 선입견, 무시 등으로 인하여 진로 찾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부모와의 갈등, 무기력, 친구와의 관계 단절, 도움을 받을 곳이 없는 등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4].

오늘날 청소년들은 산업사회가 발전함에 따라서 부모의 맞벌이, 핵가족화, 서구문화의 유입 등으로 개인주의 성향이 발달하였고, 경쟁 위주의 교육으로 인해 타인을 배려하거나 생각하는 능력이 이전보다 상당히 떨어져 있다. 지역사회자본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들은 학교 밖의 다양한 사회복지시설이나 가정, 학원 등을 통해서 그것들을 충족시킬 수밖에 없다. 또한 지역사회 자본을 잘 이용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은 비행이나 범죄에 노출되기 쉽다[5]. 따라서 사회적 자본이 학교 밖 청소년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교를 그만두는 원인은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의 다양한 요인이 있다. 내적 요인으로서는 부정적 자기인식, 낮은 자아존중감, 불규칙한 생활습관 등이 있고, 외적 요인으로는 부모와의 갈등, 가족 내 폭력이나 가정학대로 인한 가정적인 문제와 또래의 괴롭힘, 불량 친구와의 어울림과 같은 또래 요인도 있으며, 학교 수업에 대한 불만, 성적 부진이나 대중문화지향, 지지환경의 부족과 같은 학교와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학교를 그만두기도 한다[6].

학교 밖 청소년은 학업을 중도에 그만둔 청소년일 뿐이지만 비행과 비정상적인 청소년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 '학교 부적응'의 관점에서 학교 밖 청소년을 바라보는 시각은 탈선이나 낙오 등의 부정적인 의미를 포함하

고 있다[7]. 선진국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표현하기보다는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이 학교 밖에서도 지속해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자본을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어려운 환경이나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교 수업 외에 참여할 수 있는 진로준비 프로그램인 OST 프로그램이 있다. 이를 통해 진로뿐만 아니라 개인의 회복탄력성과 스트레스, 자신을 되돌아보고, 개인적 적응과 유연성을 강화하도록 돕고 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학교 밖 청소년의은 공식적인 진로 교육을 통한 기회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대중매체, 인터넷 등을 통해 진로정보를 획득하고, 자신이 선호하고 희망하는 직업에 대한 주변의 지원과 지지가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들은 일반 청소년에 비해 취업에서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학교 밖 청소년들의 진로준비행동은 사회적으로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진로준비행동은 학교 밖 청소년의 생활적응에서 중요한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청소년들의 진로준비행동 관련 연구는 대부분 대학생과 학교를 다니는 청소년에 초점을 맞춰 진행되어왔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연구는 청소년이 학업을 중단한 원인을 밝힌 연구[8]와 학교 밖 청소년의 실태나 현황을 밝힌 연구[9]가 있으며, 학교 밖 청소년의 다양한 심리·정서적 측면으로 학업 중단에 미치는 요인이나 진로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10].

학교 밖 청소년은 단지 학교를 그만두었다는 이유로 권리를 잃어버리고, 사회적 낙인으로 인해 사회적 배제와 여러 가지 사회적·심리문제를 겪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진로준비행동도 미비한 상태이다. 따라서 학교 밖 청소년들의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학교 밖 청소년의 외적 요인과 내적 요인을 함께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외적 요인인 사회적 자본이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때 내적 요인인 회복탄력성이 어떠한 매개역할을 하는지를 파악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들의 사회적 및 심리 지원 강화와 진로지도 및 상담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학교 밖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은 9~24세의 청소년 중에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학업을 유예 또는 중단한 청소년뿐만 아니라 학교 밖으로 나와 있는 모든 청소년을 의미한다. 즉 초·중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을 하거나 학교에서 재제 혹은 퇴학 처분을 받아 자퇴한 청소년,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청소년을 학교 밖 청소년이라 한다[11].

학교 밖 청소년 용어는 초기 학교생활에 부적응 한 청소년의 관점에서 학교 밖 청소년을 이해하였고, 부정적인 측면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의 주변으로부터 오는 소외감, 소속의 부재 등이 사회적 배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12]. 학교 밖 청소년은 단지 학교를 그만두었다는 이유로 권리를 잃어버리고, 사회적 낙인으로 인해 사회적 배제와 여러 가지 사회적·심리문제를 겪고 있다. 이들은 학업 중단의 원인과 상관없이 학업 중단 이후 일정 기간 위기상황으로 취약한 상태가 될 수 있고[13], 우울, 자아존중감 등의 심리·정서적인 적응에 있어서 부정적인 상황에 노출될 수 있으며[14], 사회적 낙인 등의 이유로 성인이 된 이후로도 지속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고[15][16], 부정적인 시선을 받게 된다.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발달단계와 관련된 문제뿐 아니라 남들과 다른 편견과 차가운 시선, 빈곤 및 가족과의 갈등, 가정불화, 가정해체 등 취약한 모든 사항 환경에 노출되어 어려움을 경험하고 정서적·사회적·문화적 측면의 정상적 발달 및 적응 과정을 차례대로 이수하지 못함으로 인해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며,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는 부적응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대부분의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교를 떠났다는 이유로 사회적 제도 밖으로 밀려나는 경험을 한다. 사회적 경험이 부족한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학습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기술의 기회에서 제한되며, 일상생활에서도 영향을 받는다. 청소년 시기에 학습해야 할 기본적인 또래관계, 사회기술 등에 제한이 있는 학교 밖 청소년

은 고독감과 무료함 등을 느끼고 비행에 노출되어 있고,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를 그만두었다는 이유로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학교 밖 청소년들이 밝은 미래를 준비하고 도약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적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

### 2. 사회적 자본

사회적 자본은 사회구성원들과 힘을 합쳐 공동목표를 효율적으로 추구해나갈 수 있는 것, 즉 사람과 사람 사이의 협력과 신뢰, 규범 등 나의 사회적 맥락에서 발생하는 무형자산으로 볼 수 있다. 사회적 자본은 사회구조 내에서 경쟁 관계에 있는 개인 간의 상호작용 및 교환이 지니는 경제적 중요성을 규명하며, 공유된 가치, 신뢰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자원으로서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17]. 사회적 자본의 개념화에 기여한 Bourdieu(1986)[18], Putnam(1993)[19]의 사회적 자본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Bourdieu[18]의 사회적 자본이란 상호인정과 상호인식에서 다소 제도화된 지속적 네트워크의 소유에 따라 얻는 현재적 이거나 잠재적인 자원의 집합으로 이해할 수 있다. 둘째, Putnam(1993)[19]의 사회적 자본에 관한 논의는 공동체 내의 협력 행위를 촉진해 사회적 효율성을 향상할 수 있는 조직의 속성, 즉 규범, 신뢰, 네트워크를 강조한다. 즉 이와 같은 사회자본이 지닌 기능적 측면을 강조하여 사회자본이 축적되어 사회관계망이 사회적 지지, 신뢰, 상호이해를 전달하는 통로 역할을 할 경우 정치적 안정, 경제발전이 가능하다고 보았으며, 이를 위해 대면적인 상호작용에 기초한 자발적인 결사체의 형성이 중요하다고 보았다[20].

사회적 자본은 도구적 속성을 넘어 인지적 속성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신뢰나 연대 등 다양한 사회정책의 성과지표 자체가 되기도 한다[21]. Coleman(1988)[22]은 인간자본이나 경제자본과는 달리, 사회적 자본은 개별 행위자나 생산수단 그 자체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사회구조 및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신뢰감, 정보획득의 채널, 규범의 형태로 존재한다고 주장하였다[23]. Putnam(1993)[19]은 사회적 자본을 공동체의 사회적 생산성에 영향을 주는 사람들 간의 수평적 단체로 보았다. 이 개념에는 시민참여 네트워크와 규범

이 경험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는 것과 시민참여 네트워크와 규범이 중요한 경제적 결과를 낳는다는 두 가지 가정이 내포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자본을 학교 밖 청소년들이 사회적 관계망 속에서 실제적 또는 잠재적으로 얻을 수 있는 총 자원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사회적 네트워크의 참여와 규범, 신뢰 등의 사회조직의 특징이 사회적 자본의 원천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 자본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통해서 접근할 수 있는 사회적 자원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의 진로결정이나 진로선택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3. 진로준비행동

진로준비는 진로와 관련된 유능성과 그에 대한 태도 요인이 결합된 것으로 진로준비를 위해서는 학문적 준비와 비학문적 준비가 필요하며, 비학문적 준비는 동기, 참여, 자기효능감 등이 구성요인이다. 이처럼 진로준비는 인지적, 태도적 차원에 중점을 둔다[24][25]. 따라서 진로준비행동은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차원의 진로 준비를 위한 실천적인 행위로, 진로결정을 하기 위한 모든 행위와 진로를 결정한 후, 이를 성취하기 위해 실행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한다[26].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진로준비행동을 제시한 김봉환(1997)[26]은 진로준비행동을 세 가지 측면으로 구분하였다. 첫째, 정보 수집 활동이다. 자기 자신에 대한 정보(자신의 능력, 적성, 흥미, 성격 등)와 함께 관심이 있는 직업세계에 대한 정보(현황, 전망, 취업 방법, 필수 요건, 승진경로, 직업 환경 등)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러한 정보를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수집하는 활동이다. 둘째, 필요한 도구를 갖추는 활동이다. 자신이 목표하는 직업을 갖기 위한 진로 준비 과정에서 필요한 장비나 기자재, 교재 등을 구입하는 것을 말하며, 자신이 원하는 직업에서 요구하는 자격증, 면허증을 취득하는 활동 등을 말하는 것으로 진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도구들을 준비하는 활동이다. 셋째,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천적 노력이다. 목표 달성에 필요한 도구와의 상호작용으로써, 필요한 도구를 구입하고 그에 대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실제 활동이다.

진로준비행동은 자기이해, 진로탐색 및 진로 정보 수

집, 진로 결정 및 계획, 구체적 취업준비행동으로,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생각하고 경험했던 것을 토대의 연속선상에서 이루어지고, 개인이 처한 상황과 연령 등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청소년기는 자신이 원하는 바와 직업의 가치, 흥미, 능력 등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에 적합한 직업에 관해 정보를 수집하는 때이다. 진로개발은 생애 전체에 걸쳐 지속되는 과정이며, 진로준비행동을 통하여 청소년들은 자신에게 적합한 진로를 탐색, 원하는 직업이나 진로를 성취하기 위한 준비와 계획을 하게 된다.

하지만 학교 밖 청소년이 처한 상황은 학교를 다니는 대다수의 청소년과는 다른 특수성을 가지고 있으며, 학교 안의 청소년의 진로결정 범주를 포함하여 검정고시, 복교 등에서 미종결 된 학업상태에 있다. 또한 취업이나 학업을 마칠 계획 없이 생활비만을 충당하는 아르바이트로 시간을 보내고 있어[27] 진로준비행동을 하지 못하게 된다.

윤철경 등(2010)[28]의 연구에서는 특별한 학습이나 진로 준비 없이 시간을 보내는 학교 밖 청소년이 46.9%로 상당수의 학교 밖 청소년이 진로준비행동을 하지 않고 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진로준비행동을 하지 않을 경우 진로 개척이 어렵게 되어 사회적으로는 양질의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되고, 그로 인한 사회부적응의 문제를 초래하게 되어 비행이나 범죄 등의 증가로 사회적 문제가 커지게 된다[29][30]. 따라서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준비행동을 높이기 위해서 위험요인을 감소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31].

주영신(2007)[32]의 연구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이 가족이나 친척, 또래, 지역사회의 지지가 있을 때 관계가 회복되고 자신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용이하며, 심리·정서·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직업훈련 등의 교육을 통해 자신의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긍정적 활동을 하게 된다고 하였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은 진로를 도와주는 정보적 지원이 있을 때 유연성이 높으며, 변화에 대한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데 긍정적으로 역할을 하여 심리·사회적 적응을 돕는다[33]. 이런 연구들을 볼 때, 사회적 자본은 학교 밖 청소년들은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4. 회복탄력성

최근에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나아가 적응 능력과 생활만족도를 향상하기 위한 노력이 다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 위해 여러 분야에서 많은 연구자의 주목을 받는 개념이 회복탄력성(Resilience)이다. 이러한 회복탄력성에 대한 개념은 학자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해석되고 있으나 주로 스트레스나 역경에 대한 정신적인 면역성, 내외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 역경을 성숙한 경험으로 바꾸는 능력, 곤란에 직면했을 때 이를 극복하는 힘으로 사용되고 있다[34].

Wangnild & Young(1993)[35]은 회복탄력성을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인생의 역경에 직면하고, 스트레스가 주는 정신적 피해를 최소화하며, 심리적 평정심을 되찾을 수 있는 개인의 능력으로 정의하였다. Garmezy(1993)[36]는 회복탄력성을 개인이 역경으로부터 회복하여 긍정적인 적응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심리·사회적 능력으로 정의하고, 탄력성의 핵심은 스트레스 이전의 적응수준으로 복귀할 힘이나 능력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회복탄력성은 개인의 결함이나 약점보다는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대응하는 개인의 능력과 자원에 초점을 둔 개념임을 알 수 있다.

회복탄력성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회복탄력성이 높은 청소년은 부정적인 환경에도 적응적인 모습을 보였고, 이러한 강점들이 더 높은 성취와 동기, 그리고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감을 느끼게 한다고 하였다[38]. 그러나 회복탄력성이 부족한 경우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의 상처로 인해 또래 및 친구, 가족과의 단절을 경험하게 심리, 행동적 위험요인을 가지게 된다[38]. 따라서 회복탄력성은 자신에게 닥치는 온갖 역경과 어려움은 오히려 도약의 발판으로 삼는 힘이자 시련과 역경을 이겨내는 긍정적인 힘이라고 할 수 있다[34].

권사무엘(2021)[39]의 연구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회복탄력성의 경우, 하고 싶은 공부를 하려고 학교를 그만 둔 학교 밖 청소년이 높고 싶어서 학교를 그만 둔 청소년 보다 유의미하게 높았고, 높고 싶어서라고 대답한 학교 밖 청소년은 학교징계, 교사, 친구와의 갈등으로 학교를 그만 둔 학교 밖 청소년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따라서 학교 밖 청소년들은 불확실하며 좌절되

는 상황을 직면하더라도 탄력성이 높으면 자신의 목표 달성의 성공과 직업적응을 추구하는 특성을 가진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회복탄력성은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고, 그 환경을 스스로 유리한 방향으로 이용하는 총체적 능력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회복탄력성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부정적인 정서와 요인을 감소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은 다양한 위기의 상황에서 회복탄력성을 통해 진로준비행동이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 5. 사회적 자본 및 회복탄력성과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

##### 5.1 사회적 자본과 회복탄력성

사회적 자본은 청소년들의 발달에 중요한 개념으로,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핵심적 요인이 관계의 힘이라고 보았을 때, 한 개인이 사회관계 안에서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자원으로서 사회자본이 회복탄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40]. 또한 긍정적인 친구들, 효과적인 교사와 학교, 주변의 어른들의 긍정적인 보살핌과 관계 등 청소년이 경험하는 긍정적 사회적 관계가 탄력성을 보호하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41].

전경하와 송순(2013)[42]은 사회적 자본이 다양한 유형의 사회적 지지를 통하여 아동들의 자아탄력성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발생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또한 최경옥(2015)[43]은 청소년에게 내면화된 지역사회 사회자본이 청소년의 사회적 역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추병완(2017)[44]에 의하면, 사회적 지지는 사회적 개인이 필요한 경우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가족, 친구, 이웃, 지역사회 구성원 간의 네트워크로, 개인에게 긍정적인 맥락을 부여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회복탄력적인 사람은 사회적 지지를 통해 사회적 애착을 형성하는 능력을 갖는다고 한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통해서 볼 때, 사회적 자본과 회복탄력성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 5.2 사회적 자본과 진로준비행동

사회적 자본은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 및 발달에 영향

을 미치므로[45] 상호작용 속에서 나타나는 신뢰로운 관계는 개인의 환경을 변화시키고, 이는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줄 것이다. Blau(1956)[46]는 개인이 속한 지역사회에서 주로 하는 일과 가치관, 그리고 지역사회에서의 특수한 경험은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준다고 밝혔다. 또한 김영애(2014)[47]는 진로정체감의 함양에는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학습하고 담당한다는 의미가 있으며, 이를 위해 사회의 도움이 필요하고 주장하였다.

심경섭과 설동훈(2010)[48]은 사회적 자본의 주요 기능이 정보 취득인데, 필요한 정보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얻을 수 있느냐가 취업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하였다. 즉, 사회적 자본은 장래취업에서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진로준비에 큰 도움이 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김현주와 김준영(2010)[49]에 의하면, 사회적 자본으로 학교에서의 진로교육의 경험이 학생들의 직업적 발달을 촉진시켜 자신의 진로를 계획하고 준비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고 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뢰와 규범을 바탕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사회적 자본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진로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자기이해를 높이고 자신감을 느끼게 하여 진로준비행동을 높여줄 것으로 보인다.

### 5.3 회복탄력성과 진로준비행동

회복탄력성은 인생의 심각한 어려움, 시련을 극복하여 환경에 성공적으로 적응하는 능력으로[50], 허지연(2004)[51]은 회복탄력성이 높은 사람은 충동을 잘 통제하는 행동을 보인다고 하였다. 따라서 회복탄력성은 진로에 대한 스트레스와 역경을 극복할 수 있는 주요 변인이라고 하였다[52].

이진원(2014)[53]의 연구에서는 회복탄력성이 진로준비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양혜주 등(2013)[54]의 연구에서는 무용학과 학생의 회복탄력성이 진로준비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이슬(2015)[55]의 연구에서 회복탄력성은 진로준비행동과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신영식과 권오혁(2018)[56]은 회복탄력성이 진로준비행동의 수많은 시련과 역경,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높여 자신감과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시켜 진로준비행동의 직접적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볼 때, 회복탄력성은 학교 밖 청소년들의 성공적인 진로준비를 하는데 있어 시련과 역경,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높여 자신감과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시키는 진로준비행동을 촉진시킴을 알 수 있다.

## III. 연구방법

### 1.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

#### 1.1 연구모형

본 연구는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자본이 진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들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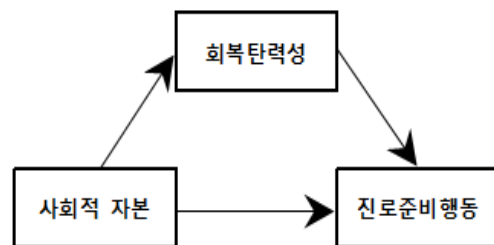


그림 2. 연구모형

#### 1.2 연구가설

본 연구는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자본이 진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들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자본은 회복탄력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자본은 진로준비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자본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은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부산시에 거주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청소년 지원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청소년, 그 외 눈덩이표집을 통해 부산지역에 살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을 발굴하였다.

설문지는 총 150부를 배부하여 135부를 회수하였고, 회수된 설문지 중 자료로서 가치가 없는 설문지 8부를 제외한 127부를 최종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 127명으로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먼저 대상자의 성별은 남성 56명(42.7%), 여성 71명(54.2%)로 나타났다. 연령은 14세는 9명(6.9%), 15세는 9명(6.9%), 16세는 34명(26%), 17세는 36명(27.5%), 18세는 26명(19.8%), 19세는 13명(9.9%)로 나타났다. 진로를 위해 다니는 곳으로 청소년지원센터 12명(9.4%), 검정고시학원 63명(49.6%), 대안학교 6명(4.7%), 홈스쿨링 2명(1.6%),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44명(34.6%)로 나타났다. 학교 중단 후 경험으로는 아르바이트 2명(1.6%), 검정고시 준비 68명(53.5%), 집에 있다 57명(44.9%)로 나타났다. 현재 나에게 필요한 지원으로 검정고시 준비 14명(11%), 진학 정보제공 49명(38.6%), 진로 탐색 체험 16명(12.6%), 심리적 안정 지원 30명(23.6%), 또래 관계 형성 14명(11%), 기타 4명(3.1%)로 나타났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127)

구 분		빈도	백분율
성별	남	56	44.1
	여	71	55.9
연령	14세	9	7.1
	15세	9	7.1
	16세	34	26.8
	17세	36	28.3
	18세	26	20.5
	19세	13	10.2
진로를 위해 다니는 곳	청소년지원센터	12	9.4
	검정고시학원	63	49.6
	대안학교	6	4.7
	홈스쿨링	2	1.6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44	34.6

학교 중단 후 경험	아르바이트	2	1.6
	검정고시 준비	68	53.5
	집에 있음	57	44.9
현재 나에게 필요한 지원	검정고시 준비	14	11
	진학정보 제공	49	38.6
	진로탐색 체험	16	12.6
	심리적 안정 지원	30	23.6
	또래관계 형성	14	11
	기타	4	3.1

## 3. 주요변수

### 3.1 사회적 자본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자본을 측정하기 위해 사회교육개발원의 홍영란 등(2007)[57]이 사회적 자본 지표를 본 연구의 대상에 맞게 수정하여 활용하였다. 사회적 자본은 신뢰, 호혜적 규범, 참여의 3개 영역으로 구성되며, 총 19개 문항을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더 많은 사회적 자본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사회적 자본의 신뢰도는 .96이다.

### 3.2 진로준비행동

본 연구에서는 진로준비행동을 측정하고자 이명숙(2003)[58]의 진로준비행동검사를 활용하였다. 진로준비행동검사는 총 18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진로준비행동의 신뢰도는 .92이다.

### 3.3 회복탄력성

본 연구에서는 회복탄력성 척도를 측정하기 위해 신우열 등(2009)[59]이 개발한 청소년 회복탄력성 척도인 YKRQ-27을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통제성, 긍정성, 사회성의 3개 영역으로 구성되었고, 총 27문항이다. 모든 문항은 리커트식 5점 척도로 구성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회복탄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회복탄력성 신뢰도는 .89이다.

### 3.4 인구학적 변수

인구사회학적 변인으로는 성별, 연령, 진로를 위해 가

장 많이 다닌 곳, 학교 중단 후 경험, 현재 필요한 지원으로 분류하였다.

#### 4. 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WIN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각 변인별 신뢰도 검증을 위해서 Cronbach's  $\alpha$ 를 실시하였다. 또한 독립변수와 매개변수, 그리고 종속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Correlation(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Baron & Kenny(1986)[60]의 매개검증을 통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매개경로의 유의성을 확인하고자 Sobel-test를 실시하였다.

### IV. 연구 결과 및 해석

#### 1. 변수간의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 주요변인인 사회적 자본, 진로준비행동, 회복탄력성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 사회적 자본, 진로준비행동, 회복탄력성간의 상관관계

변수	사회적자본	진로준비행동	회복탄력성
사회적 자본	1		
진로준비행동	.672***	1	
회복탄력성	.903***	.851***	1

\*\*\*  $p < .001$

첫째, 사회적 자본과 진로준비행동( $r = .672, p < .001$ )은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둘째, 사회적 자본과 회복탄력성( $r = .903, p < .001$ )은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셋째, 진로준비행동과 회복탄력성( $r = .851, p < .001$ )은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따라서 사회적 자본이 높을수록 회복탄력성과 진로준비행동이 높음을 알 수 있다.

#### 2. 사회적자본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

본 연구에서 사회적자본과 진로준비행동간의 관계를 회복탄력성이 매개하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Baron & Kenny(1986)[60]의 매개효과 검증방법을 실시하였다. 먼저 1단계에서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고, 2단계에서는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한다. 3단계에서는 독립변인과 매개변인을 동시에 투입했을 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자본과 회복탄력성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구분		$\beta$	R <sup>2</sup>	F
1단계	사회적 자본 → 회복탄력성	.903***	.813	549.69
2단계	사회적 자본 → 진로준비행동	.851***	.722	329.02
3단계	사회적 자본 → 진로준비행동	.672***	.771	213.13
	회복탄력성 → 진로준비행동	1.320***		

\*\*\*  $p < .001$

먼저, 1단계 독립변인인 사회적자본과 매개변인이 회복탄력성을 확인한 결과, 결정계수인 R<sup>2</sup>는 .813으로 사회적 자본이 회복탄력성을 81.3% 정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표준화 회귀계수는 .903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따라서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자본은 회복탄력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은 지지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2단계 독립변인인 사회적자본과 종속변수인 진로준비행동을 확인한 결과, 결정계수인 R<sup>2</sup>는 .722로 사회적자본이 진로준비행동을 72.2%로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표준화 회귀계수는 .851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따라서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자본은 진로준비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는 지지되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는 사회적자본과 진로준비행동



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변수를 투입한 결과, 사회적자본의 표준화 계수가 ( $\beta=.672$ )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알아보기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Sobel test에서 z값이 1.96보다 크거나 -1.96보다 작으면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이다. 분석 결과, 회복탄력성의 간접효과가 유의하였다( $Z=8.068$   $p<.01$ ). 따라서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자본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은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가설 3은 지지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4. 사회적자본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 검증**

매개효과 경로	Z
사회적 자본 → 회복탄력성 → 진로준비행동	8.068**

\*\*  $p<.01$

##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자본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이들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각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고, 중다 회귀분석을 통하여 회복탄력성이 사회적자본과 진로준비행동에 매개효과가 있는지 확인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자본은 회복탄력성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 자본이 중학생의 회복탄력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40] 결과를 지지하며, 청소년에게 내면화된 지역사회의 사회적 자본이 청소년의 사회적 역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43] 결과와 유사한 맥락이다. 따라서 학교 밖 청소년들의 회복탄력성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자본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의 사회적 자본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학교 밖 청소년의 회복탄력성은 진로준비행동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회복탄력성이 진로준비행동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56][61] 결과와 유사하다. 따라서 학교 밖 청소년들의 회복탄력성을 통한 진로준비행동에 임할 수 있는 개입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셋째, 사회적 자본과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은 부분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부분매개 역할을 하였다고 보고한 장이슬[51]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탄력성이 진로스트레스와 장벽을 극복하는 핵심요소라고 밝힌 London & Mone[62]의 주장을 지지한다. 따라서 학교 밖 청소년들의 긍정적 심리자원인 회복탄력성에 초점을 맞추어 이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들의 회복탄력성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심리·정서적, 1차집단, 사회적자본에 개입하기 위한 다양한 상담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외적 변인으로 사회적 자본을, 내적인 변인으로 회복탄력성을 설정하였으며, 두 변인 모두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준비행동과 관련해 중요한 변인임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학교 밖 청소년들의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내적인 영향과 외적인 영향을 파악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준비행동을 높이기 위해서는 회복탄력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추구하고, 사회적 자본과 회복탄력성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 이론적 틀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본 연구를 통해 몇 가지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 포함된 학교 밖 청소년은 한 지역으로 제한되었으므로 연구 결과를 일반화 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후속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지역의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자기보고식 검사로 주관적인 평가이므로 후속연구에서는 개별면담, 관찰 등의 방법을 통해서 결과의 타당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자본의 하위요인인 신뢰,

호혜성, 참여가 회복탄력성을 매개로 했을 때 진로준비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후속연구는 사회적 자본의 하위요인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응답자의 인구학적 특성을 통해 기본적인 데이터 확인에 그쳐 인과관계를 검증하지 못했다는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변인간 분석에 따른 구체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1] 김경준, “사회적 스티그마의 청소년에 대한 영향과 대응,” 한국청소년연구, 제21권, 제3호, pp.5-31, 2010.

[2] 한국청소년상담원, *학교밖청소년 길찾기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현판식 및 학술세미나*, 서울: 한국청소년상담원, 2018.

[3] 김재희,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가 합리적 진로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적응 유연성의 매개효과 검증*, 호남대학교 사회융합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8.

[4] 여성가족부, *2018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여성가족부, 2018.

[5] 김지혜, 탁영란, “청소년의 사회적 자본과 주관적 건강 수준의 관계: 탄력성의 매개효과,” 한국학교보건학회지, 제32권, 제1호, pp.41-49, 2019.

[6] 양미진, 지승희, 이자영, 김태성, “아동, 청소년상담: 학업중단청소년의 사회적응력 향상을 위한 캠프프로그램 개발연구,” 상담학연구, 제8권, 제4호, pp.1657-1675, 2007.

[7] 이화명, 김영미,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낙인과 심리사회적 적응 간의 관계,”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7권, 제9호, pp.549-562, 2017.

[8] 조아미, 이진숙, “학업중단 청소년의 생활과 욕구,” 청소년학연구, 제21권, 제7호, pp.145-170, 2014.

[9] 최지연, 김현철, “학업중단 청소년의 특성 및 지원 방안 연구,” 청소년학연구, 제23권, 제3호, pp.103-132, 2016.

[10] 노지혜, 문성호,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 특성 및 진로성숙 예측요인,” 청소년문화포럼, 제58권, pp.61-86, 2019.

[11] 법제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2017.

[12] 김영희, 최보영, 이인희, “학교밖 청소년의 생활실태 및 욕구분석,” 청소년복지연구, 제15권, 제4호, pp.14-29, 2013.

[13] 오은경, *학교 밖 청소년의 우울과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5.

[14] 박동진, 김나연,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낙인감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존중감 의 매개효과,” 한국청소년활동연구, 제5권, 제3호, pp.71-87, 2019.

[15] 박현수, 박성훈, 정혜원, “청소년비행에 있어 낙인의 효과에 대한 경험적 연구: 비공식 낙인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제20권, 제1호, pp.227-251, 2009.

[16] FU QIANCHAO, *자살 기사 댓글에 관한 텍스트 마이닝 분석: 유명인과 일반인 자살에 대한 낙인 인식 비교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20.

[17] A. J. Field, “The most technologically progressive decade of the century,” *American Economic Review*, Vol.93, No.4, pp.1399-1413, 2003.

[18] P. Bourdieu, *The Forms of Capital*, J. G. Richardson(ed.), *Handbook of Theory and Research for Sociology of Education* (pp.241-258), New York: Greenwood, 1986.

[19] R. Putnam, “The prosperous community: Social capital and public life,” *The American Prospect*, Vol.13(spring), pp.35-42, 1993.

[20] 배은경, 최인숙,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사회적 자본이 아동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제27권, 제1호, pp.33-63, 2016.

[21] 서지원, “중년기 및 노년기 사회자본의 경제적 복지 효과 비교,”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제51권, 제2호, pp.207-218, 2013.

[22] J. Coleman,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94, pp.94-121, 1988.

[23] 송한나, *한국 사회의 계급위치와 계층의식 격차에 미치는 경제, 문화, 사회적 요인에 관한 연구: 부르디외의 자본의 형태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24] 임언, 윤형한, “대학생용 진로개발준비도 검사 개발,” 진로교육연구, 제18권, 제1호, pp.116-132, 2005.

[25] 진영선, 조아미, “잠재계층분석(LCA)을 이용한 청소년의 진로준비행동 유형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제23권, 제3호, pp.315-339, 2016.

- [26] 김봉환, 김계현,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의 발달 및 이차원적 유형화,”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제9권, 제1호, pp.311-333, 1997.
- [27] 이경상, 조혜영, “사교육시간, 개인공부시간, 학교수업참여도의 실태 및 주관적 학업성적 향상 효과,” 한국교육, 제32권, 제4호, pp.29-56, 2005.
- [28] 윤철경, 류방란, 김선아, *학업 중단현황 심층분석 및 맞춤형 대책 연구*, 교육과학기술부-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 2010.
- [29] 남기곤, “고등학교 단계 학업 중단의 경제적 효과 추정,” 서강경제논총, 제40권, 제3호, pp.63-94, 2011.
- [30] 최동선, 이상준, *학교중단 청소년을 위한 진로개발 지원 방안*,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9.
- [31] 오은경, “학교 밖 청소년 유형별 사회적 지지, 진로준비행동, 사회적 배제 및 우울 간의 차이,” 청소년시설환경, 제12권, 제2호, pp.65-80, 2014.
- [32] 주영신, 보호관찰청소년의 재범 후 삶에 관한 근거이론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 [33] 조선경, *학교 밖 청소년의 부모 및 또래지지와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자기결여의 매개효과*, 명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7.
- [34] 김주환, *회복탄력성: 시련을 행운으로 바꾸는 유쾌한 비밀=Resilience*, 서울: 위즈덤하우스, 2011.
- [35] G. M. Wagnild and H. M. Young, “Development and psychometric evaluation of the Resilience Scale,” *Journal of Nursing Measurement*, Vol.1, No.2, pp.165-178, 1993.
- [36] N. Garmezy, “Children in poverty: Resilience despite risk,” *Psychiatry: Interpersonal and Biological Processes*, Vol.56, No.1, pp.127-136, 1993.
- [37] 김현순, *청소년의 애착과 자아탄력성이 정서·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 [38] 김은주, *중학생의 자아분화, 자아탄력성과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간의 관계*,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 [39] 권사무엘,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사회적지지를 통한 회복탄력성의 조절된 매개효과*, 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1.
- [41] 권선형, *사회자본이 중학생의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6.
- [40] A. S. Masten and J. Obradović, “Disaster preparation and recovery: Lessons from research on resilience in human development,” *Ecology and Society*, Vol.13, No.1, p.9, 2008.
- [42] 전경하, 송순, “가족내·외의 사회적자본이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 연구: 자아탄력성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제18권, 제1호, pp.143-165, 2013.
- [43] 최경옥, *지역사회 사회자본이 청소년 사회적 역량에 미치는 영향* 성공회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5.
- [44] 추병완, *회복탄력성*, 서울: 도서출판 하우, 2017.
- [45] 전혜숙, 전종설, “가족 및 학교 사회적 자본이 청소년 온라인·오프라인 비행 변화에 미치는 영향,” *Journal of School Social Work*, 제44권, pp.99-130, 2018.
- [46] P. Blau, “Social mobility and interpersonal relation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21, pp.290-295, 1956.
- [47] 김영애,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이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성산효도대학원 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 [48] 심경섭, 설동훈, “대학생의 사회적 자본과 문화적 자본이 직업 포부에 미치는 효과 분석,” *한국인구학*, 제33권 제2호, pp.33-59, 2010.
- [49] 김현주, 김준영, “청소년의 진로 이행과 청소년, 부모의 인적 및 사회적 자본과의 관계,” *청소년복지연구*, 제12권 제2호, pp.23-52, 2010.
- [50] C. R. Wicks, *Resilience: An integrative framework for measurement*, Doctoral Dissertation, Loma Linda University, 2005.
- [51] 허지연, *청소년의 자아탄력성과 또래관계 및 축진적 의사소통 능력간의 관계*, 서울여자대학교 특수치료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52] 손산산, *사회적 지지, 회복탄력성 및 진로준비행동의 관계*,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20.
- [53] 이진원, *고등학생의 회복탄력성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 [54] 양혜주, 여인성, 원도연, “무용학과 대학생의 멘토링 관계가 회복탄력성과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과학회지*, 제22권, 제5호, pp.1089-1102, 2013.
- [55] 장이슬, *대학생의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 검증*, 순천향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6.

- [56] 신영식, 권오혁, “미용전공 대학생의 진로장벽, 회복탄력성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제24권, 제1호, pp.343-353, 2018.
- [57] 홍영란, 김태준, 현영섭, 소진광, 이승희, *사회적 자본 지표 개발 및 측정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2007.
- [58] 이명숙, *대학생의 진로자기효능감과 진로장애지가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분석*, 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59] 신우열, 김민규, 김주환, “회복탄력성 검사 지수의 개발 및 타당도 검증,” 한국청소년연구, 제20권, 제4호, pp.105-131, 2009.
- [60] M. Baron and A. Kenny,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51, No.6, pp.1173-1182, 1986.
- [61] 허성영, *청소년의 회복탄력성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그릿의 매개효과*, 건양대학교 상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20.
- [62] M. London and E. M. Mone, *Career management and survival in the workplace*, SanFrancisco, CA: Jossey-Bass, 1987.

이 화 명(Hwa-Myung Lee)

정회원



■ 현재 : 경남정보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 아동복지, 청소년복지, 여성복지

### 저 자 소 개

김 영 미(Yeoung-Mi Kim)

정회원



- 2015년 : 사회복지학박사
- 2018년 : 영유아교육학박사

〈관심분야〉 : 사회복지 및 교육과 상담관련